

“결단하는 인생”

사무엘상 20:1-11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의 사위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구축해 놓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가야 하느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결정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친구를 택하고 아버지를 배반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단순히 인간적인 우정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안에서 목숨을 다한 우정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상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말 잘 통하고 재미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하기 전, 사울왕의 의사를 한번 더 확인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뭇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었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삼상 20:1-2)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일단 사무엘에게 피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곳에 피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문제를 대항하여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어떤식으로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싸우는 면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고, 사울은 이유도 없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든 사울을 대적할 수 있었지만,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망을 하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어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는 동안, 영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울에게 잘 보이는 것이 곧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잘 보이고자 열심히 했지만, 사실 사울은 그런 다윗의 잘하는 모습을 보며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를 바짝 낮추고 옆드려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가 되지 않는데 지혜롭지 않게 나서고, 또 잘난체를 하면 사람들의 시기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왕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이 나서지 않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결심을 했다면, 반드시 다윗에게 알려겠다고 약속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피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 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삼상 20:12-13)

여기서 요나단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돕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으며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상사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그들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나 상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거역하고 있을 때에는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운명을 함께 하지만, 다윗과의 언약도 지킵니다. 요나단의 이 결정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혈육과 신앙적인 관계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가족들이 교회와 어려운 관계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요나단은 지금 사랑하는 두 사람 즉, 아버지와 신앙의 동지인 다윗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다윗의 부인 미갈은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섰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도망치게 한 후에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혈육의 관계보다 신앙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내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며 아버지의 원수와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삭이 되었을 때, 왕의 식탁에 여러 중신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첫날에는 사울이 모른채 하고 지나갔는데, 둘째 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은 이새의 아들(다윗)이 오늘도 식사에 나오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 집에 제사가 있어 특별 휴가를 청해서 다녀오게 했다고 대답하자, 사울은 불같이 화를 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 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삼상 20:30-31)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려고 하니, 단창으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식사 자리에 오면 그를 죽이려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오히려 그를 도망치게 했으니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인데, 그에게 걸림돌이 될만한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살려 주어 도망가게 했으니 요나단에게 단단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렇듯, 요나단은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한 것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교훈 하십니다.

1.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훈련 후에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 떠나게 하십니다. 이후로 10년간 광야에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다윗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가장 영성이 충만했던 시기였습니다.

2. 순간 순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라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결단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단한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움으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를 배반하게 되고 자기에게 돌아올 왕관도 포기합니다. 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기쁘게 살기로 결단하라

돈, 출세, 성공만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진짜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지상 최고의 부를 누렸던 그였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어라 한탄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 1:2)

사람들이 불행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고 난 후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기로 결심하면,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하기로 결심하면 없던 감사도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행복하기로 결심하면, 보이지 않던 행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결단은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 어느 한쪽이 아무리 좋아보여도,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앞서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위대한 결단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내가 만약 요나단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진솔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2.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신앙을 위해 했던 결단이 있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소소한 결단도 신앙을 위한 것이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